

# 전시회 탈피...확 바뀐 氣찬 월출산 국화축제

### 영암군 기찬랜드서 27일~내달 13일까지 18일간 열어 풍성한 체험행사·공연·경연...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2016 氣찬 월출산 국화축제”가 오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18일간 명품 피서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월출산 기(氣)찬랜드에서 열린다.

“가을여행! 국화향기 가득한 영암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그동안 왕인박사유적지, 영암읍 동무지구 등으로 장소를 옮기며 ‘국화전시회’ 형식으로 개최해온 이전 축제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게 영암군의 설명이다. 특히 국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군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농·특산물 판매점 및 먹거리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돕는다는 점도 기존 축제와는 다른 점이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도 전시행사, 공연행사, 경연행사, 체험행사 및 부대행사로 나눠 다채롭게 구성됐다.

전시행사는 기찬랜드 내에 국화 분화 25종 16만여점을 활용해 왕인문, 국화탑, 캐리더, 아지, 장승, 국화담장, 하트 등을 비롯한 악성 김창조 선생, 기찬이와 기순이, 김창조 생가터 답장지봉 등의 작품이 들어선다.

메인전시관에는 영암국화연구회의 분재국과 대형 다분대작 및 한해국이 배치되고 월출산 가을풍경 등 화훼작품이 조성되며, 가야금산조기념관 정원에는 국화탑과 다양한 분재국이 설치되는 등 수준 높은 국화작품들로 꾸며진다.

또 공연장 앞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14종이 설치되며, 김창조 선생 생가터에는 김창조 선생 및 가야금 산조 모형작이 배치된다.

주요 공연행사로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개장식과 함께 ‘송대관, 박현빈, 조항조, 강진, 신유, 김용임, 최진희’ 등 인기가



수 20여명이 출연하는 개장 축하공연을 펼쳐지며, 축제기간 평일·주말에도 다채로운 문화공연 행사가 예정돼 있다.

대표적인 경연행사는 ‘남도삼색 전국요리경연대회’와 ‘전국외국인가요제’다. 11월 12일 오후 1시부터 예정돼 있는 ‘남도삼색 전국요리경연대회’는 영암한우, 장어, 고구마, 대봉감 등 영암의 대표 식재료

와 강진, 장흥의 대표 식재료 등 남도를 대표하는 3개 지역의 특산물을 주제로 요리 경연이 펼쳐진다. 11월13일 오후 1시에는 ‘전국외국인가요제’가 열린다.

체험행사도 다양하다. 관광객들이 직접 제작한 컵에 국화꽃 씨앗을 담아가는 ‘국화꽃 모종 테이크아웃’부터 국화팔찌 및 국화꽃 도자기 제작, 국화향초 및 국화향수 만들기 등 국화와 연관된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대표적이다.

또 어린이 맞춤형 놀이터인 ‘국화 키즈 놀이터’와 ‘氣찬 우드놀이 체험’, ‘떡매치기 체험’, ‘스마트 포토 체험’, ‘氣찬건강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로 가득하다.

전동영 영암군수는 “올해 氣찬 월출산 국화축제는 기존 보여주는 방식에서 완전 탈바꿈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국화향기로 가득 차게 될 월출산 氣찬랜드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손발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 강진군 상·하수도 사업 국비 133억 확보

강진군은 “만덕지구 농어촌상수도화 총사업”과 ‘강진덕동·봉황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이 환경부로 부터 2017년 상·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132억 9000만원을 포함한 총 18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정으로 매년 물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해 도암 굴동마을 등 20개 마을 주민이 큰 혜택을 보게 됐다.

강진군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7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공사를 완료해 양질의 수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진덕동 봉황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강진읍 덕동마을과 칠랑면 봉황마을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상수도보급률 58%(전국 98%), 하수도보급률 57%(전국 93%)로 보급률이 낮아 그동안 환경부와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K-water 장흥 대덕읍서 의료봉사

K-water 장흥수도관리단(단장 정상인)은 “최근 장흥군 대덕읍 복지회관에서 서울 열린의사회와 함께 사랑나눔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65세 이상 주민과 장애우, 결혼이주여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료봉사는 장흥군 지방상수도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K-water에서 지역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봉사에는 서울에서 온 전문 의료봉사 단체 열린의사회와 K-water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 주민들은 내과, 외과, 치과, 한의과, 물리치료 등 다양한 진료 상담과 치료는 물론 현장에서 간단한 건강검진도 진행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영암군 조산업 실직자 일자리 참여자 243명 모집

영암군은 23일 “조산업 불황에 따른 실직자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에 응모, 국비 9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조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사업(공공근로형)이다.

영암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9억4000만원과 지방비 4억1000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을 투입해 12개 사업 243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오는 27일까지 행정전산화 45명, 환경정비 198명 등 총 243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 대상자는 조산업 실직자와 가족이 우선 선발되며, 영암군민 중 신청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필요서류는 조산업 실직자 및 가족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등본 및 구직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 서부발전 장흥에 10만㎡ 풍력발전소 건설 추진 인근 주민들 “소음·수질 오염” 반발

장흥에서 풍력발전건설사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20일 장흥군과 장흥지역민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서부발전(주)은 장흥군 유지면 용문리 산 4번지 10만㎡ 일원에 16MW(2.0MW×7기)규모의 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풍력발전 건설사업은 지난 2010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1월 장흥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15년 2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한국전력서부발전(주)은 현재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내년 2월 공사를 착공해 1년 내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예정부지로부터 3km 안팎에 있는 장흥군 부산면 심천리 등 5개 마을 500여 주민들은 소음과 수질오염, 환경훼손 피해 등을 우려하며 풍력발전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풍력발전에 따른 부작용 등을 연구한 전문 교수단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피해해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특히 “서부발전측이 장흥군과 업무협약체결, 타당성조사, 발전사업 허가 신청 등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의 동의 절차조차 없었다”며 “착공단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자체가 주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승주 장흥군 기업지원과장은 “풍력발전건설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일선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현지 주민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사업추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권장사업인 풍력발전 건설사업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있어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일선 지자체가 현지 주민의 반대여론을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신규로 풍력발전이 건설되면 정부로부터 일선 지자체에 5km 이내 현지 주민구역을 주민의 지원금 명목으로 특별지원금 8억원(1회)과 일반 지원금 3000만원(20년간)이 지원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영암소방서 소방안전체험 영암소방서(서장 문태후) 영암초등학교 119소년단이 최근 전북 임실 119안전체험관에서 지진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소방안전체험을 했다. 영암초교 119소년단 24명은 이번 견학에서안전 매트와 완강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았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4억 2500만원
- 보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강력 추천!!**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용 7억 3000만원만 있으면, 법인체 인수 가능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매매 - 협의

**토지, 6000평**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협의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